

보 도 설 명 자 료

('22. 2. 17)

수신 :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

제목 : 정부는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석탄발전의 과감한 감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

(2.17일자 조선일보 「‘탈석탄’ 文정부 5년, 발전량은 7.2% 증가」 보도에 대한 설명)

- ◇ 석탄발전량은 '12년 이후 지속 증가하여, '18년 정점을 기록한 이후 '19년부터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 정부는 △신규 석탄발전 인·허가 금지 및 노후 석탄발전 폐지, △석탄발전량 제한 등을 통해 석탄발전의 과감한 감축을 지속 추진하고 있음
- ◇ 2.17일 조선일보 <‘탈석탄’ 文정부 5년, 발전량은 7.2% 증가> 기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1. 기사내용

- 문재인 정부 5년('17~'21년) 동안 탈(脫)석탄 정책을 추진했지만, 석탄발전량은 이전 5년('12~'16년) 보다 7.2% 증가
 -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과 함께 탄소 배출과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겠다면서 탈석탄 정책을 추진했지만 석탄발전은 오히려 증가

2. 동 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

- 정부는 석탄발전 설비를 감축하기 위해 ①신규 석탄발전 인·허가를 금지하고, ②노후 석탄발전 폐지 및 ③전환을 추진 중

- ❶ 과거 정부('13년)의 7기*(7.2GW) 석탄발전사업 신규 허가 이후 현 정부에서는 석탄발전에 대한 신규 인·허가는 全無

* 신서천#1('13.9월), 고성하이#1·2('13.4월), 강릉안인#1·2('13.4월), 삼척화력#1·2('13.7월)

- ❷ '17년 이후 현재까지 10기*의 노후 석탄발전을 폐지

* ('17.7월)서천#1·2, 영동#1, ('19.1월)영동#2, ('20.12월)보령#1·2, ('21.4월)삼천포#1·2, ('21.12월)호남#1·2

- ❸ '34년까지 총 24기의 석탄발전을 폐지하고, LNG발전으로 전환 계획

- 정부는 석탄발전량 제약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❶미세먼지 계절관리제(3차례), ❷자발적 석탄발전 상한제('21.4월~) 시행 중

- ❶ '19년부터 겨울철('12월~3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석탄발전 가동을 중단하고 출력 상한을 제한하고 있으며,

* 제1차 계절관리제('19.12~'20.3월) : 8~28기 가동정지, 최대 49기 상한계약
제2차 계절관리제('20.12~'21.3월) : 9~28기 가동정지, 최대 46기 상한계약

- ❷ '21년부터는 4월~11월간 발전공기업(전체 석탄발전의 92%) 대상으로 자발적 석탄발전 상한제 실시

- 석탄발전량은 '12년 이후 지속 증가하다가 '18년 정점을 기록한 이후 감소 추세이며, '18년 대비 '21년 석탄발전량은 약 △17.3% 감소

《 석탄발전량 및 비중 현황(GWh, %) 》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발전량	199,330	201,118	203,765	207,333	213,803	238,799	238,967	227,384	196,333	197,600
비중	39.1	38.9	39.0	39.3	39.6	43.1	41.9	40.4	35.6	34.3
이용률	92.5	93.6	88.5	90.1	76.2	74.3	73.8	70.1	60.6	60.4

- 석탄발전 설비용량은 '12년 이후 지속 증가*하였으나, 석탄발전 이용률이 지속 감소하여 발전량도 감소하는 추세

* 설비용량(GW) : ('12년)24.5→('14년)26.3→('16년)32.0→('21년)37.3(설비 증가는 '14년 이전 인허가 물량)

- 정부는 석탄발전 설비감축 및 발전량 제약을 지속 추진하고, 암모니아 혼소·전소 등 혁신기술을 활용하여 석탄발전을 대체할 계획임

※ 문의 : 전력산업정책과 강감찬 과장(044-203-3880) / 이주노 사무관(3881)